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광역 지자체 최초·유일 연구개발특구 2개 쾌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탄력... 고용유발 858명 등
기존 특구와 상호 강점 결합한 '가치사슬' 구성

전북도가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를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 산업기지 조성 목표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2·3면〉

이번 유치 성공으로 전북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유일하게 2개의 연구개발특구를 보유,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가치사슬을 한층 촘촘하게 구성하게 됐다.

전북도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구위원회(위원장 최기영 장관)를 열고 도가 제출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사실상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1개의 기술핵심기관과 소규모 배후공간의 집약형 특구로 1개 특구당 2㎢ 이내(전국 20㎢ 한계)로 지정한다.

이번에 유치를 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가 배후단지로 지정됐으며, 특히화어로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가 결정됐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비롯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도 참여, 사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앞으로 전기차 소프트웨어(SW)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부품 등 2개 분야를 축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전북 연구개발특구와는 소재개발 및 완제품의 수요와 공급망 형성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한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성하게 된다.

강소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국비가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되고(약 60억원)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등이 감면될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부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기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등 4대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



'생활의 과학화' 안전체험장 방문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전북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생활의 과학화 안전체험장을 찾아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완강기 사용법, 손 씻기 등을 체험하고 시범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인센티브 '한번에'

주민센터서 간소화 서비스

전북도는 8월 3일부터 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자진반납 시 집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역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시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새물결플러스)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도는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통해 지난 해 남원, 정읍, 무주 3개 시, 군에서 올해는 14개 전 시, 군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70세 이상 고령운

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는 10만원 그 외 11개 시, 군에서는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및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자는 1,391명으로 지난 해보다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본사 인사

▲한경봉

명 : 군산 취재 본부장

〈7월 28일자〉

전북도 '미생물 증가' 탄력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벨리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 조기 완성

전북도가 미생물 증가 프로젝트 시즌 2로 명명되고 있는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벨리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의 1단계 조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국내 토종미생물 2.4만주(농진청)와 국내 최대 미생물 유전자원은행(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이 8만 주, 순창 발효 미생물산업진흥원이 4만 주 보유하는 등 미생물자원 최대 보유지역으로 미생물분야 국가적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벨리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은 미생물분야 신규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 중점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1개 사업 중 1단계에 해당하는 6개 사업(650억원)을 국비로 연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전라북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생물 증가 프로젝트 시즌 1을 추진했다. 발효산업 분야의 국내 및 세계의 거점 지역 육성을 목표로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자원을 확보, 미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생물 증가 프로젝트 시즌 1은 주요 사업으로 정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미생물가치평가센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구축,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 기반 구축, 한국형 장건강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미생물 자원확보와 핵심인프라 구축이 중심으로 국공립 연구기관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500억원의 예산과 350명 가량의 미생물분야 석·박사 인력이 일하게 되었다.

미생물 증가 프로젝트 시즌 2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 미생물융복합클러스터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을 포함한 11개 사업 1,427억원 규모의 사업을 순창과 정읍, 익산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사업(300억원)은 2019년 2월에 공모에 선정, 건강한 장내 유익세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건강기능식품 축산형생체 대체제 및 반려동물 산업육성이 가능하므로 향후 농식품분야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본 사업으로 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발효미생물산업허브지원센터(80억원)는 2018년 5월에 공모에 선정, 유용종균의 개발 및 발효식품제조업체 공급 활성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군반제품 원료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역 미생물기업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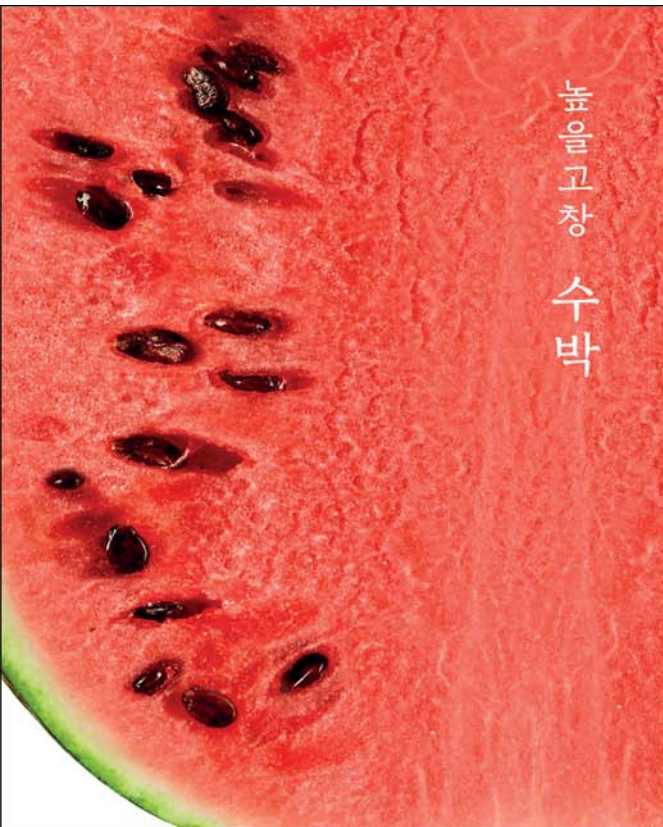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6억원)은 올해 3월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전통식품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한 유통물류 제어모델 개발 및 기능성우수성 규명 사업으로 전북 강점인 전통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합미생물 분석장비 구축(20억원)은 농축산용 분야 우수미생물 기반 제품의 가치 고도화 향상을 위해 안전성 평가 분석시스템을 구축, 제품 분석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기업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250억원)는 올해 4월에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에 선도적 대응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전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 시험기관으로 가속전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대응 기술 확보와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 미생물융복합클러스터 2단계의 향후 추진할 사업으로는 2021년부터 추진할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86억원), 전통식품안전성 모니터링 후속사업인 장류 기능성규명 플랫폼 구축(120억원)을 비롯, 동물케어 의료기술 개발센터(200억) 및 반려동물 테스트 베드 구축(300억) 등 6개 사업, 771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 미생물융복합클러스터의 실행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전문가 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한 세부 실행 전략을 마련, 우선 추진 사업부터 농식품,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에 신규 사업으로 제안해 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향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높을고창 수박



높을고창 복분자



높을고창 멜론